

2023. 11. 25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

복지정책과장

하영태

02-2133-731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7쪽

보훈복지팀장

안희숙

02-2133-7329

## 희망 전하는 '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' 2년여간 성과 듣는다

- 11.24.(금) 전쟁기념관에서 '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' 개최
- 행사 앞서 오 시장, 나라사랑 청년상 시상·청년부상제대군인 제도 개선 간담회
- 작년 3월 개소한 '상담센터' 올해 성과·내년 계획 발표,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
- 오 시장 "심포지엄 통해 청년 부상군인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되길"

#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. 닥치는 대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. (중략) 청년제대부상군인센터에서 나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고 조치방안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.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다.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,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.

#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꾸준히 (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) 자조모임에 참석하고 있다. 그곳은 나 스스로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곳이었으며, 일상을 잃어버린 나에게 쉼터 같은 곳이었다.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스토리와 부상 부위가 다르지만 늘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돕고 있다.

〈청년부상장병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 '한 발 사용 설명서' 발췌〉

- 서울시는 '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'을 개최, 올 한해 「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」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.

- 24일(금) 오후 1시 50분,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<그날의 기억 그들의 바람 그리고 우리>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, 청년부상제대군인, 보훈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.
-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3월 25일,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.
  - 오세훈 시장은 2021년 6월 청년유공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며,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시는 작년 10월에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  - 본 조례에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▲사업계획 수립 ▲지원 대상 ▲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.
- 상담센터(서울시청 시민청, 지하 1층)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위해 법률상담, 심리재활지원, 창업·취업 연계, 유공자 신청 지원, 자조모임 운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.
  - 상담센터는 개소 이후, 10월 말 기준으로 약 844건의 종합상담을 진행했다. 상담센터를 통해 의료자문, 보훈대상 등록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아

온 청년부상장병 2명이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1, 보훈보상대상자1)로 최종 등록되었고, 현재 청년부상장병 12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심사를 돕고 있으며 그중 1명은 최종 심사 중에 있다.

- 취업특강 등의 취업지원 활동(189회)을 통해 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, 자조모임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7인의 청년부상장병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 ‘한 발 사용 설명서’를 출간하여 심포지엄 참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.
- 또한 상담센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주거취약 청년부상장병 7명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「청년 유공자 테마형 주택 추진」을 12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.
- 내년에는 국가보훈부, 군 병원, 민간기업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부상장병에 대한 법률, 심리, 취업, 주거 지원 등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□ 이외에도 상담센터는 지난 6월, 연평도 포격전을 주제로 한 보훈선양 예술극 ‘사운드’를 제작, 상연하여 부상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긴 바 있다.

- 예술극 ‘사운드’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부상을 입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를 극복하는 과정을 예술극으로 그린 실화 바탕 작품으로, 실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인 ‘이한’이 주연 배우로 출연해 현실감과 감동을 높였다.
- 사운드는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3회 상연되었다.

□ 심포지엄 시작 전 개회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라사랑 청년상을 시상하고,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진다.

- 나라사랑 청년상은 의무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, 지

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보훈선양 등에 활발한 활동을 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올해 5명에 대해서 첫 시상이 이루어진다.

- 나라사랑 청년상 수상자 고○○씨는 2002년 해군에 몸담고 있었으며 제2연평해전 교전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(NLL) 침범에 대응하여 전투를 치렀으며, 적을 퇴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. 이 과정에서 고씨는 부상을 입었다.
- 곽○○씨 또한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제2연평해전에 참여했다. 곽씨는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보이며 북한 경비정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.
- 역시나 해군 출신인 김○○씨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, 사고 당시 동료 전우들의 구조활동에 적극 나서며 군인정신을 발휘해 타 군인들의 모범이 되었다.
- 차○○씨는 연평부대 근무자로, 2010년 연평포격전 당시 부상당한 부대원의 신속한 대응 및 후송을 위해 노력하며 타 부대원들의 안위를 챙긴 점을 인정받았다.
- 박○○씨는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을 진단받았다.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만기전역을 하였다. 또한 전역 이후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자조모임 부회장을 맡는 등, 다른 부상제대 군인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.

□ 심포지엄 1부에서는 상담센터의 2023년 사업성과 및 2024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, 2부와 3부에서는 ‘부상군인의 삶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’, ‘부상군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의 인식’을 주제로 토론시간을 가지며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해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.

- 오세훈 시장은 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는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했지만,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정책이다.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, 우리 청년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문을 열었다”라며 “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상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

○ 일시 : 11.24.(금) 13:50~17:00

○ 장소 :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

※ 참석자에게 청년부상장병 7명이 공동집필한 수기집 배포

구 분	내 용
개회	나라사랑청년상 시상식 청년부상 제대군인 간담회
1부	23년 사업성과 및 24년 사업계획 보고
2부	<p><b>부상군인의 삶과 지원제도 개선방안</b></p> 진행자 : 김세진(태재연구재단 선임연구원) 토 론 : 이강수(한국보훈학회 부회장), 최병욱(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 과 교수) 최영기(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)
3부	<p><b>부상군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의 인식</b></p> 진행자 : 김세진(태재연구재단 선임연구원) 토 론 : 이강수(한국보훈학회 부회장), 최병욱(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 과 교수) 최영기(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)

**Q1. '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'는 어떤 곳인가요?**

-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법률상담, 보훈상담, 심리재활 및 자조모임 지원, 취업 지원 등을 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

**Q2. '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' 주요 운영실적은 무엇인가요?**

- 본 상담센터는 2022.3.25. 개소하여 1년 8개월째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(10월말 현재) 법률지원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2명 등록 및 12명 심사 진행 중, 종합상담 844건, 자조모임 36회 206명, 취업성공 3명, 취업지원 1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.

**Q3. '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' 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?**

-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이 있다면 상담센터(6354-2030~2)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주변에 이러한 부상 제대군인이 있다면 상담 전화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